

□ **관련공약**

- 공 약 명(3-4-1) : 전통시장택시 확대운영
- 공약내용 : 전통시장 일정금액이상 구입 고객 택시요금 할인쿠폰지급

□ **소통실적**

- 일 시 : 2017. 3. 24 ~ 3. 25.
- 대 상 : 국제뉴스 및 강원일보
- 내 용 : 전통시장택시쿠폰제도 시행 홍보

□ **실적자료**

<p>전국 강원   영월군 서부시장택시쿠폰제도 시행</p> <p>이준근기자   keji5178@hanmail.net</p> <p>2017.03.25 12:18:03</p> <p>(영월=국제뉴스)이준근 기자 = 영월 서부시장에서 3월 22일부터 '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'가 시행된다.</p> <p>전통시장과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이번 사업에는 영월 서부시장(서부공설, 서부아침, 종합상가) 160여개 점포와 개인택시 80대, 법인 3개사 38대 등 총 118대가 참여한다.</p> <p>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강원도 5천만원, 영월군 5천만원, 서부시장 상인회 1천만원, 영월 개인·법인택시가 5백만원을 각각 부담하였다.</p> <p>사업비는 쿠폰자금으로 1억원을 배정하여 1천원권 택시쿠폰 10만매를 발행하게 되며, 쿠폰인쇄비 등 운영비에 나머지 1천5백만원이 쓰이게 된다.</p> <p>영월 전통시장 택시쿠폰(액면가 1천원)은 영월 서부시장에서 상품당 2천원 구매 시 쿠폰 1매를 이용객에게 지급하고, 이용객은 이 쿠폰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</p> <p>지역의 전통시장과 택시업계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</p> <p>송노학 경제고용과장은 "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택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'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'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, 앞으로도 영월 서부시장과 택시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"고 당부했다.</p> <p>&lt;저작권자 ©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&gt;</p> <p>보도자료(국제뉴스, 2017.3.25.)</p>	<p>[영월]"전통시장서 장보면 택시쿠폰 드려요"</p> <p>지역 영월   2017-3-24 (금) 15면 - 김광희 기자 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</p> <p>영월군 서부시장 활성화 택시쿠폰제도 시행 인기</p> <p>【영월】영월군이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.</p> <p>군은 지난 22일부터 서부시장에서 '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'를 시행하고 있다.</p> <p>이번 사업에는 영월 서부시장(서부공설, 서부아침, 종합상가) 160여개 점포와 개인택시 80대, 법인 3개사 38대 등 총 118대가 참여하고 있다.</p> <p>사업비는 1억1,500만원으로 도 5,000만원, 영월군 5,000만원, 서부시장 상인회 1,000만원, 영월 개인·법인택시가 5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.</p> <p>사업비는 쿠폰자금으로 1억원을 배정해 1,000원권 택시쿠폰 10만매를 발행했다.</p> <p>쿠폰인쇄비 등 운영비에 나머지 1,500만원을 쓰게 된다.</p> <p>전통시장 택시쿠폰은 고객이 서부시장에서 상품당 2만원 구매 시 쿠폰 1매(액면가 1,000원)를 지급받게 되며 이 쿠폰을 택시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 <p>서부시장 상인들과 택시업계는 이 제도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</p> <p>군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.</p> <p>제2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억원을 들여 영월읍 하송리 8-3 일원 2,670㎡에 올해 말까지 버스 4대, 승용차 1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.</p> <p>한편 군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특화브랜드 개발, 전열 개선, 상인교육, SNS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.</p> <p>송노학 군 경제고용과장은 "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'전통시장 택시쿠폰제도'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다"고 말했다.</p> <p>보도자료(강원일보, 3.24.)</p>
---	---